“오색찬란 산사의 멋”… 올림픽 ‘100배’ 즐기기

강원도 5대 사찰 테마여행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국내 올림픽에 전국이 기대감으로 들썩인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만 찾아다닌다면 정작 강원도의 알짜배기는 그냥 지나치는 셈이다. 강원도가 낯설기만 한 이들을 위해 강원도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강원도로 떠나는 테마여행’ 코스를 마련했다. 낙산사 · 백담사 · 삼화사 · 신흥사 · 월정사 등 강원도 5대 명찰로 연계된 코스로 5색 산사를 즐겨보자.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평창올림픽 홍보체험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 경포대 인근이다. 동계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D체험관 등이 마련돼 있다.

오죽헌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조선시대에 건축됐다. 한국 주택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손꼽히기도 한다.



주문진 도깨비촬영지

종편드라마로 최고시청률 20%를 달성한 ‘도깨비’의 촬영지인 영진해변의 주문진 방사제. 드라마 방영 이후 로맨틱한 장면을 재연하려는 연인들의 인기 관광지가 됐다.

통일전망대

휴전선과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 금강산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며, 맑은 날에는 옥녀봉, 채하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DMZ박물관



한국전쟁 기록을 비롯해 분단 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보존돼 있는 DMZ의 모습을 전시물과 영상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화진포의 성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건물로 지어진 화진포 성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이 하계휴양지로 이용해 김일성 별장으로도 불린다.

묵호항

동해를 대표하는 항구다. 1941년 동해안 제1의 무역항으로 개항했으며, 현재는 어업기지로 바뀌었다. 어시장에서 싱싱한 횟감을 구할 수 있고, 생선 경매 장면도 구경할 수 있다.

천곡동굴



총길이 1.4㎞의 석회암 수평동굴로 4~5억 년 전에 생성된 천연동굴이다. 국내서 유일하게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천장 용식구, 커튼형 종유석, 석회화단구 등을 볼 수 있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곰솔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해양레일바이크로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5.4㎞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흔들바위

4~5명이 팔을 벌려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도의 바위로 일명 쇠뿔바위라고도 한다. 한 사람이 흔드나 여러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설악산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권금성



설악동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를 수 있다. 기암 능선이 즐비한 설악산 전경과 맑은 날에는 동해와 속초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척산온천휴양촌

지하 4,000m에서 형성된 53℃의 데우지 않는 천연온천수로 수질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다.



상원사

상원사 동종은 국내 현존하는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725년에 만들어진 이 종은 높이 167㎝, 지름 91㎝ 크기의 구리종으로 국보 제36호로 지정됐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전망대에 올라서면 대관령 정상에 선 듯 아름다운 평창 알펜시아의 전경과 웅장한 대관령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스키점프대 최상층에는 전망대,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다.

대관령 양떼목장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한국 최초의 양 목장이다. 넓은 초원에서 300여 마리의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뛰어노는 풍경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대행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향전 영배

유 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혜철 포교국장 선림
율 주 중산 혜남 교무국장 인경 호법국장 자인
강 주 영은 현진 재무국장 무문 원 주 선원
박물관장 지준 사업국장 석운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